

27 의료기관 보건직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

성별	여성	나이	35세	직종	보건의료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만 21세인 1999년 □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사하였고 이후 약 13년 7개월 동안 수면다원검사, 전산화 뇌영상 검사, 바이오피드백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3년 초 유방 내 멍울이 발견되어 2013년 3월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□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사하여 13년 7개월간 근무하였다. 이 기간 중 수면다원검사로 인해 야간업무를 수행하였다. 보통 검사자 1인이 관리를 하므로 근무 시간 중 별도의 수면 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근무 중 10분 정도의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라고 하였으며, 끊임없이 모니터를 관찰하고 환자의 수면 중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을 기록해야하므로 매우 바쁘다고 진술하였다. 이후 남자 동료근로자가 입사한 뒤로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동료에게 이관되고 본인은 판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.

기본적으로 수면다원검사 시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하여, 야간 근무 기간을 추정하였을 때, 1999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월 2~5회, 2000년 12월까지 거의 없다가 2006년 9월까지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. 이 기간(2001년 1월 ~ 2006년 9월) 중 월 4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35개월이었고, 유방암 발병 전까지 전체 기간 중 월 4회를 초과한 것은 41개월이었다. 끊임없이 월 2~3회 이상 실시된 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6년 9월로 4년 4개월로 추정되었고 여기에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을 합산하면 6개월을 더해 약 5년으로 할 수 있다. 이후 2006년 9월 이후부터는 검사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

유해인자

- 기타 작업환경 요인(그외)

5

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3년 초 유방 내 멍울을 발견하고 □대학병원에서 좌측 유방 관내 상 피내암을 진단받았고, 좌측 유방 보존적 절제술 및 액와부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였다. 이후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였다. 발병 이전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으며, 유방암의 가족력, 흡연력은 없었다.

6

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13년 7개월 동안 □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6년 동안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. 외국의 다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, 교대근무와 유방암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15~30년 이상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어, 근로자의 야간근무가 유방암 발생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따라서, 근로자의 유방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